

#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 두 아들에게 부치는 글

정약용

(1762~1836)

이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여 완전하고 훌륭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기이하다고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파손된 것이나 찢어진 것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다듬어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그 공덕을 바야흐로 찬탄할 수 있듯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내야 훌륭한 의원이라 부르고, 위기에 처한 성(城)을 구해내야 이름난 장수라 일컫는다. 누대에 걸친 명문 집안의 고관들의 자제들처럼 좋은 옷과 멋진 모자를 쓰고 다니며 집안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다 할 수 있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 “망한 집안 일으키는 길”

폐족(廢族)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구석 수재(秀才)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도 있는데다 중년에 재난을 만난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네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책만 읽는다고 해서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醫員)이 3대를 계속해오지 않았으면 그가 주는 약을 먹지 않는 것 같이, 반드시 몇대를 내려가면서 글을 하는 집안이라도 문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내 재주와 기질이 너희들보다 조금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어려서는 방향을 알지 못하였고 나이 열다섯에야 비로소 서울 유학을 해보았으나 이곳저곳 짐적거리기만 했었지 얻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후 스무살 무렵에 처음으로 과거공부에 전력을 기울였더니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태학(太學: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또다시 대과(大科) 응시과목인 4자구(四字句)·6자구(六字句) 등의 변려문(駢麗文)에 골몰하다가 규장각으로 옮겨가서는 그 과제에 응하느라고 한갓 글귀만을 다듬는 공부에 거의 10년이나 몰두하였다.

그 뒤로 또 책을 교열하고 퍼내는 일에 분주하다가 곡산부사(谷山府使)가 되어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오로지 정신을 쏟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신헌조(申獻朝)·민명혁(閔命赫) 두 사람의 탄핵을 받았고, 그 이듬해 정조대왕이 승하하신 비통함을 당해 서울과 시골을 바삐 오르내리다가 지난 봄에 유배형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거의 하루도 오로지 독서에만 마음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시나 문장은 아무리 맑은 물로 씻어내다 해도 끝내 과거시험 답안같은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조금 괜찮은 것일지라도 관각체(館閣體: 홍문관·규장각 등에 종사하는 문사들의 문체)의 기운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요 근래 우리 문학을 배척하고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큰 병통이다. 우리나라 옛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저 엉터리가 될 뿐이다.”

머리털과 수염이 이미 희끗희끗하고 정기도 이미 시들고 말았다. 이것이 다 운명이구나.

너희들 중에 학연(學淵: 정약용의 만아들)의 재주와 기억력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도 조금 떨어진 듯하나 열살 때 지은 네 글을 나는 스무살 적에도 짓지 못했을 것 같고, 이 근래에 지은 글은 지금의 나로서도

미치지 못할 것이 더러 있으니, 그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길을 택했고 건문이 조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곡산(谷山)에서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내가 네게 과거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주위에서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를 짓던 선비들은 본격적인 학문을 시킬 일이지 과거공부 따위나 시키고 있는냐고 모두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랐고, 나도 마음이 허전했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과거공부로 인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이미 진사도 되고 과거에 급제할 실력은 족히 된다고 본다. 글을 알면서도 과거 때문에 오는 제약을 벗어나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한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 일인가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다. 나아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얻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 중에 학유(學游: 정약용의 둘째아들)의 재주와 역량을 보면 큰애보다 주판 한 알쯤 부족한 듯하나 성품이 자상하고 사고력이 좋으니, 진정으로 열심히 책임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어찌 형을 따를 수 없다고 하겠는가. 근자에 둘째의 글을 보니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 “기초가 중요하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기초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으며, 학문에 뜻을 둔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기초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오직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그것이다. 먼저 모름지기 효제를 힘써 실천함으로써 기초를 확립해야 하고, 기초가 확립되고 나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진다. 학문이 이미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지면 특별히 순서에 따른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한 나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지라,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구절이나 한 편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이윽고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기는데, 너희들 생각은 독서에서 이미 연(燕)나라나 월(越)나라처럼 멀리 떨어져나가서 문자를 쓸데없는 물건 보듯 하는구나.

몇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 그 동안 너희들은 나이가 들어 신체는 커지고 또한 수업까지 답수룩한 그 모습을 문득 대한다면 밍스스럽게 되어 있을 텐데 어찌 나의 책을 읽으려고 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천하에 불효자였던 한(漢)나라의 조괄(趙括)은 그가 아버지의 글을 잘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진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참말로 독서를 하고자 않는다면 내 저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흙으로 빛은 사람처럼 될 뿐 아니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들 것이고, 병이 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들은 이런 점들까지 생각해서 다시 분발하여 공부해서 내가 이어온 실낱같이 된 우리 집안의 글하는 전통을 너희들이 더욱 키우고 번창하게 해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은 물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의 청귀(淸貴)와는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니,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버리고 도모하지 않느냐.

### ‘실학’에 뜻을 두거라

요즈음 한두 젊은이들이 원(元)·명(明) 때의 경조부박한 망령된 사람들이 가난과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들을 모방해다가 절구(絶句)나 단율(短律)을 만들어 잘난 체하며, 당대의 문장인 것처럼 자부하고 거만하게 남의 글이나 욕하며 고전적인 글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가

# 올바른 글은 쉬워야 한다

## 간결하고 응혼하며 깨닫기 쉬운 글쓰기

허균

(1569~1618)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經學)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實學)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 뒤 더러 안개 낀 아침, 달뜨는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그냥 운율(韻律)이 나오고 저절로 시(詩)가 될 때 천지자연의 음향이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경지일 것이다. 나보고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지 말라.

요 근래 수십년 이래로 한가지 괴이한 논의가 있어 우리 문학을 대단히 배척하고 있다.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눈도 주지 않으려 하니 이거야말로 큰 병통이다. 사대부(士大夫)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의론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저 엉터리가 될 뿐이다. ❖

\*출전 : 《다산문학선집》(박석무·정해렴 편역, 현대실학사, 1996)

### 고침

지난호(187호) 《출판저널》 기사중 4쪽 1단의 '동아출판사는 전진 출간을~발단이 됐다', 2단의 '협회가 진행중이며~낙관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동아출판사는 합법한 계약에 의해 출간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5쪽 1단의 '출판사가~작업을 진행한 것으로'에 대해, 출판사는 독자적인 기획에 의해 책을 제작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물었다. “오늘날 고문(古文)에 능한 사람을 들라면, 반드시 그대를 으뜸으로 꼽는다. 내가 보니 그 글이 비록 넓어서 끝이 없는 것 같긴 했지만, 대개 일상어를 썼고, 문장은 순하다. 그것을 읽어보니 입을 열면 술술 넘어가서, 그 글을 읽거나 모르거나 간에 걸림이 없다. 고문을 업으로 삼는다는 자의 글이 과연 이와 같은가?”

내가 대답했다. “뜻을 전달하는것이 글의 요체”

“그런 것이 바로 고문이다. 그대가 본 우(虞)·하(夏)나라의 전(典)·《서경》에 실린 요·순 임금의 역사)과 상(商)·殷나라의 훈고(訓誥)·삼서(三誓)·역시 《서경》에 실린 역대의 치적을 기록한 글) 및 무왕(武王)이 이룬 홍범(洪範)·은나라의 현인인箕子가 주나라 무왕을 위해 정치·도덕의 아홉 가지 범주를 말한 것) 등이 모두 문장으로는 지극한 것이다. 그대는 또한 문장을 낚시질하고 구절을 끌고다루는 자를 보았는가.

공자 말씀에 ‘사(辭)는 뜻을 전달하면 될 뿐이다’ 하셨다. 옛적에는 글로 위 아래의 뜻을 통하고 그들의 도를 실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 글이 명백하고 정대하였으며 성실하고 정녕하였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환하게 깨닫도록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글의 쓰임새다. 3대(하·은·주)의 6경과 성인의 글, 그리고 노자와 제자백가의 말은 모두 그 도를 논하였기 때문에, 그 글을 깨닫기 쉽고 문장 또한 예스럽다.

그러나 뒷세대로 오면서 글과 도가 두 가지로 되어, 이때부터 문장을 낚고 구절을 끌고다루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글의 액이지, 글의 지극함은 아니다. 내 비록 노둔하나 이런 짓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뜻이 전달되는 것만을 주로 삼아 쉬운 글을 지었을 뿐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대는 좌씨(左氏)·장자

공자말씀에 ‘사(辭)는 뜻을 전달하면 될 뿐이다’ 하였다. 옛적에는 글로 위아래의 뜻을 통하고 그들의 도를 실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 글이 명백하고 정대하였으며 성실하고 정녕하였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환하게 깨닫도록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글의 쓰임새다.

(莊子)·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 및 근대의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소동파(蘇東坡)를 보았는가? 그들의 글이 어찌 일상어를 썼던가? 그대의 글은 옛것을 본받지 않고 물이 넘실거리듯 넓기만 하니, 이는 옛글에 싫증난 탓이 아닌가?”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한 몇 사람의 글이 어찌 일상어와 다르겠는가? 내가 보건대, 비록 간결한 듯도 하고 응혼한 듯도 하며, 깊은 듯도 하고 분방한 듯도 하며, 굳세고 기이한 듯도 하지만 모두 그 당시에 쓰던 일상어이다. 그러한 말을 다듬어서 단아하고 참되게 만들었으니, 쇠를 찍어서 금을 만들었다고 말할 만하다. 뒷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글을 볼 적에 어찌 오늘날의 우리가 앞의 몇 사람의 글을 보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물이 넘실거리듯 넓은 것은 바로 커지고자 함이요, 옛글을 본뜨지 아니한 것은 독창성을 세우고자 함이다. 어찌 싫증난 탓이라고 하는가? 내 그대를 위해 저 몇 사람에게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려고 한다.

좌씨는 스스로 좌씨가 되고 장자는 스스로 장자가 되었으며, 사마천과 반고는 스스로 사마천과 반고가 되었다. 한유와 유종원·구양수도 또한 한유와 유종원·구양수가 되어, 서로 답습하지 않고 저마다 일가를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처럼 되기를 배우는 것이다. 남의 지붕 아래에다 또 하나의 집을 짓거나 답습하고

표절했다는 꾸지람을 받게 될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가 또 물었다.

“옛글은 쉽고도 유창해” “그대가 지금껏 지은 글은 쉽고도 유창하다. 그대가 말한 바 옛것을 본받았다는 함은 무엇에서 구한 것인가?” 내가 대답했다.

“마땅히 편법(篇法)과 장법(章法)과 자법(字法)에서 구해야 한다. 편(篇)을 이루는 법에는 한 뜻으로 곧바로 내려온 것도 있고 더러는 열쇠처럼 이어지는 법도 있으며, 또는 구절마다 정서가 일기도 한다. 늘어놓다가 풍자하는 말로 맺기도 하며, 더러는 자세하고 번잡스러운문서도 법도가 있다. 장(章)을 이루는 법에는 조리가 정연하여 문란치 않게 하는 법도 있고, 뒤섞여도 잡되지 않게 하는 법이 있다. 끊어지는 듯하면서도 앞을 잇고 뒤를 동여매는 법이 있으며, 아주 짧은 것도 있고 말을 채 마치지 않는 법도 있다. 자(字)를 쓰는 법에는 울리는 곳과 깔아 놓은 곳이 있다. 거둬되면서도 난잡하지 않는 곳과 강하되 힘을 들이지 않은 곳, 이끌어왔으면서도 애쓰지 않은 곳과 열고 닫는 곳, 부르고 소리치는 곳 등을 수습해야 한다.

글자가 밝지 못하면 구절이 단아하지 못하고, 문장이 타당치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만 한 편의 글을 이룰 수 있다. 나의 글은 다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옛글도 또한 이 법을 행한 것이다. 오늘날 글을 제법 안다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으니, 하물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 사람이 말했다. “나도 거기까진 이르지 못했으니 잘못이로다.” ❖

\*출전 : 《홍길동전·허균 산문집》(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5)